

황천(荒天)항해속의 어선해난사례

중암해난심판원

1. 사 례

삼경호는 선량 액 30년의 목조 활어운반 어선으로 ○○년 12월 23일 22시 00분경 활어(블락치어) 약 1,0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선장, 조기장 등 4명의 선원이 승선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월 24일 18시 00분경 일본 구주 북단의 가라스항에 도착, 양하 완료한 다음 기상악화로 곧 출항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3일후인 12월 27일 17시 00분경 기상이 회복되자 가라스항을 출항, 여수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부에 공창 1개와 그 뒤로 4개의 활어창을 설비하고 있고 출항전 트림 조절을 위하여 3번과 4번 어창의 물뿔(水孔)을 열어 해수를 채운 공선상태로 가라스항을 출항하여 선장의 조선으로 대마도 남서해안을 경유 자침로 310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12월 28일 03시 50분경 홍도등대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0분 40초, 동경 128도 55분 50초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풍파가 거세지면서 큰 파도가 선수우현측으로부터 덮치자 선수부 선저로부터 침수됨과 동시에 선수부가 침하되고 있어 곧 2~3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였다.

이때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풍파를 우현정황으로 받게 되어 연속적으로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면서 전어창으로 침수가 확대되고 기관실에까지 해수가 넘쳐 들어 삼시간에 침몰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구조 요청할 여유도 없이 04시 00

분경 구멍뗏목을 개방, 선원 4명 모두 퇴선하고 선체는 선원들이 퇴선하고 난 잠시 후 그대로 침몰되고 말았다.

이후 선원들은 구멍뗏목을 타고 표류하고 있던 중 같은날 16시 40분경 부근 해역에서 30톤급 일본국적 장어통발 어선에 발견, 구조되어 약 1시간 후에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도착 인계되어 대마도에 상륙했다가 다음날인 12월 29일 우리나라 해경정에 인계되어 부산항으로 귀환되었다.

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4~15미터의 북서 내지 북동풍에 파도 2~2.5미터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

이 사고의 원인은 선령이 오래된 선박이 황천 중 전속 항주함으로써 풍파의 영향으로 선저 외판이 균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선박은 선령이 30년이 넘는 노후선이며 더우기 활어선으로서 1개의 어창 선저부에 30여개씩의 물뿔을 터서 이곳으로 해수가 드나들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선체가 취약하고 따라서 감항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 데다가 폭풍주위보가 해제된 후의 악천후 속에서는 감속하여 파도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전속 항진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인한 선체 선저부의 파손으로 침수되어 결국 침몰하게 된 것이다.